

#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위안과 용기

직장인 · 생활인들의 심리적 호응 이끌어

글\_ 조서환KTF 전무, 대전마케팅본부장

《마시멜로 이야기》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선물》 《선택》 등과 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출간되고 있는 많은 자기계발서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설계를 하며 계획적인 삶,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특히, 매년 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게 된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바램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후 일상으로 되돌아와 후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많은 유혹에 나약해진 스스로를 다시금 채찍질 하는 방법에는 교육, TV프로나 주변인의 사례, 책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두껍지 않고, 쉬운 내용의 동기부여 서적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는데 아주 유효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이점에서 《마시멜로 이야기》는 책 읽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직장인 및 젊은층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즉,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잊고 살게 되는 것들을 일깨워줌으로써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 잡게 해주는 소중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특히, 마시멜로라는 강력한 은유를 통해 저자의 의도를 강하게 전달 함으로써 한번 읽고 난후 다시 책을 꺼내어 읽지 않고 책상머리에 두고 책 표제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동기 부여가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위사람에게 추천이나 선물하기에도 좋은 책이라고 본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화와 사례를 곁들인 대담형식으로 쉽게 전개되어져 있는 반면 다양한 교훈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달콤한 성공의 비결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함을 부담감 없이 제시해 줌으로써 독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본다. 특히, 성공=목표+열정+실천의 단순한 공식만으로 될 수 없음을 여러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가젤과 사자를 빚댄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는 교훈을 통해 냉철한 현대사회의 이면을 제시한 반면, 아룬 간디의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사건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나 자신의 행동방식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모범을 보이면 상대방에게 큰 영향력(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 “감동에 의한 설득”이며 이것이 성공에 이르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한다(이 부분은 자녀교육에 가장 민감한 부모에게 있어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에선 래리 버드와 호르헤 포사다와 같은 스포츠 스타를 사례로 “기회는 준비한자에게 영광은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과 같이 실천과 도전을 강조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언을 빠트리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마시멜로를 너무 일찍 먹었다고 실망하지 말라” 누구나 많은 계획과 도전을 시도하다 실패를 맛보곤 한다. 하지만 최소한 도전한 자에게 제 자리에 머문 사람보다 도전한 기간만큼의 발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독자들에게 위안과 재도전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에 충분하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술 마시고, 놀이를 즐기며,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미래를 위해 현실의 유혹을 인내로 참아내고 목표를 향해 세워진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인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들, ‘인생을 즐기고 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행복에 더욱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쯤 뒤 돌아 볼 수 있게 해준다. 일상생활 속 목표달성의 길목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한다. 쉽게 좁혀지지 않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만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 조건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현실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쪽이 한결 쉽기 때문이다. 성공을 갈망하는 현대인에게 어느 날 문득 접한 《마시멜로 이야기》는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삶의 마시멜로우는 아닐까? **▶▶**